언해본의 세계

ㅇ우리 문화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던 한글 창제의 의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항상 재음미되어야 마땅하다.

o 세종의 「훈민정음서」와 정인지의 「훈민정음서」, 최만리의 훈민정음 반대상소문 등의 논리를 통해서 훈민정음 창제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음.

<자료> 세종의 서문
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, 그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,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지라. 내가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노니, 사람마다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.

<자료> 정인지의 서문(발췌)
우리나라는 禮樂 文章이 중국과 견줄 만하나, 다만 方言과 俚語가 서로 같지 않다. 글(한문)을 배우는 이는 그 뜻의 깨닫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獄事를 다스리는 이는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롭게 여겼다. 옛날 신라의 설총이 처음 이두를 지어서 官府와 민간에 이제까지 쓰이나, 다 한자를 빌어 쓰는 것이어서 혹은 걸리고 혹은 막히어 다만 비루하고 無稽할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 있어서는 그 만분의 일도 달하지 못할 것이다. …(중략)… 스물여덟 글자를 가지고 전환이 무궁하고 간단하면서도 요긴하며 정묘하고도 두루 통하느니라.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아침 안에 깨칠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느니라. 이것을 가지고 글(한문)을 풀이하면 가히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로써 訟事를 들으면 가히 그 정상을 알 수 있느니라.

ㅇ 역사적 측면에서 본 한글 창제의 동기

1. 고유한 문자를 가지지 못한 국가적 체면과 여기에서 나온 민족적 문제
2. 백성이 글을 알지 못하여 백성 스스로가 불편하였거나 혹은 治者層과 백성 사이의 의사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하였던 점
3. 글을 모르는 백성들[愚民]의 처지를 세종이 '어여쁘게 혹은 애닯게[憫然]' 여긴 점
4. 民度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

ㅇ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. 그러나 이는 한글 창제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.

1. 지배 질서의 공고화
2. 백성들이 자신의 정치적, 사회적 의사 표시 수단으로 이용

o 조선 전기 언해본의 존재 현황

- 건국의 당위성 강조 : 용비어천가
- 유교 서적 : 행실도, 향약 / 소학언해를 비롯한 유교 경전 언해
- 불교 서적 : 월인천강지곡, 석보상절, 월인석보 / 불경언해
- 문학서 : 두시언해

o 언해본의 역할

- 훈민정음의 실용성 및 기능 실험
-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백성들 사이의 소통
- 민중 통치를 위한 수단(국가 이데올로기의 전파)
- 기타